

##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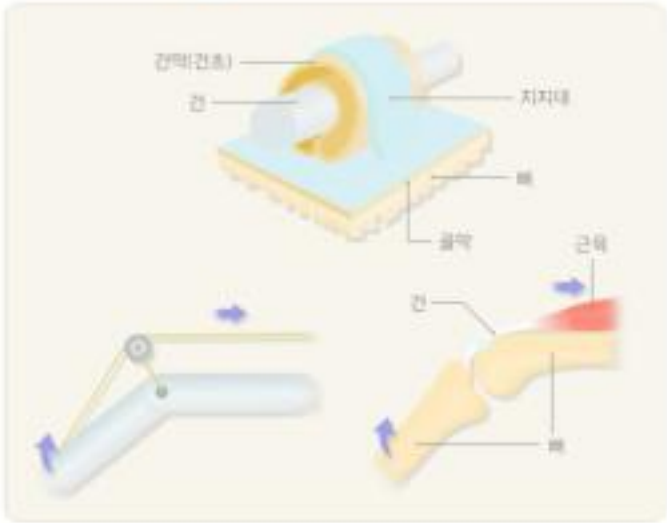
건은 촘촘하고 백백한 섬유성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으면서, 혈관이 잘 발달하여 있지 않습니다. 따라서 그 자체에는 염증세포의 침윤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건을 둘러싸고 있는 활막막(synovium), 즉 건막(tendon sheath)에는 염증성 세포의 **침윤**이 비교적 흔하게 발생합니다.

이러한 상태를 건염(tendinitis) 또는 건막염(tenosynovitis)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. 이들 용어는 건막과 건의 염증성 질환을 **총괄**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.

근육에서 주어지는 힘의 방향을 바꾸거나 힘을 증폭하기 위하여 건이라는 줄은 도르래를 필요로 합니다. 이러한 도르래는 많은 경우, 섬유골성 관 (fibro-osseous tunnel)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. 섬유골성 관의 단면적은 건의 그것보다 약간 커서, 건은 무리 없이 지나가면서 힘과 에너지의 효율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

건막에 염증이 발생하면 부종과 통증 등을 야기하며, 이로 인해 건에 섬유골성 관을 지나가기 힘든 상태가 초래되는데, 이를 건막염이라고 부릅니다. 한편 섬유골성 관이 늘어나면서, 건이 그 원래의 위치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도 건막염은 발생할 수 있는데, 이 경우에는 건염보다는 건 탈구 (tendon diskocation) 등 보다 특유한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
〈그림. 건의 해부학적 구조의 모식도〉



## 개요-종류

건막염은 평생 누구나 몇 번씩은 경험할 정도로, 비교적 흔하게 발생합니다. 건막염에는 세균에 의한 것과 비 세균성인 것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건막염이 대부분입니다. 이들은 가벼운 외상에 의해 **반흔** 조직이 형성되어 발생하거나, 건과 그 가까운 조직에 마찰이 증가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.

특발성 건막염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흔한 형태 중 하나는 도르래와 건 사이가 잘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포착성 건막염 (entrapment tenosynovitis), 또는 협착성 건막염 (stenosing tenosynovitis)입니다. 그 이외에 건이나 근육 부위에 정도가 가벼운 **파열**이나 **퇴행성** 변화가 나타난 이후, 이로 인한 증세가 수 개월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건과 외부의 물체 또는 건과 내부의 뼈가 반복적으로 마찰되면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. 기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전(機轉, mechanism)에 의해 특발성 건막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비 세균성 중 원인이 밝혀진 대표적인 것으로는 류마치스 **관절염**에 있습니다. 실제로 류마치스 관절염 환자의 대부분에서, 그 진행 과정 중 언제인가는 건막에 염증을 일으키며, 이 때 건막의 조직 검사에서는 류마치스성 병리 소견이 발견됩니다.

세균에 의한 건막염은 **화농성**과 **결핵성** 감염 등 침범된 균의 종류에 따라 나눌 수 있으며, 이 경우 발생한 고름은 건막 하 공간을 따라 쉽게 퍼져 나갈 수 있습니다.

### ▣ 관련 건강정보

[건막염\(감염성 건막염\)](#) [건막염\(류마치스 건막염\)](#) [건막염\(통풍성 건막염\)](#) [건막염\(특발성 건막염\)](#)


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"**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**"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

※ 본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게시물에 대한 법적책임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.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